

韓國傳統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rtificial Pond of the Korean Traditional Temple

권태철* · 홍광표**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Kwon, Tae-Cheol* · Hong, Kwang-Pyo**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경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입장이며, 더 나아가 전통사찰의 수경관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는 더더욱 드문 형편이다.

본 연구는 韓國傳統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물리적인 형식과 더불어 그것에 내재된 조영의미를 조사·분석·해석하여 우리 나라 傳統寺刹에 도입되어 온 傳統의 水景觀의 형식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형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傳統寺刹에서 조성되어온 人工池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2. 研究의 方法

① 調査方法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전통사찰에 관련된 제반 내용과 수경관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현지조사는 연구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조사과정에서는 확실한 도면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사진촬영을 통해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지조사에서 수행한 조사의 내용은 각각의 대상사찰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위치, 규모, 형태, 구조 그리고 주변과의 상관성 등에 관한 것들이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사찰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번호	사찰명	지역	창건연대	현상조성시기	사적
1	乾鳳寺	강원 고성군 오대면 냉천리	신라 경덕왕 17년 (758)		
2	淸平寺	강원 춘성군 북산면 청평리	고려 광종 24년 (973)		
3	傳燈寺	경기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264(고려)	1621년 중수	조계사의 말사
4	開心寺	충남 서산군 운산면 신창리	13세기	1940년대	수덕사(7교구본사)의 말사
5	定林寺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동	7세기 초		
6	彌勒寺址	전북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백제 부왕 (7세기 초)		
7	實相寺	전남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신라(828)	1884(고종21)	
8	佛影寺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651	1611	
9	佛國寺	경북 경주시 진현동	770(신라)	770	
10	海印寺	경남 함천군 가야면 처인리	신라(802)	1480	12교구 본사
11	通度寺	경남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	646(신라)	1652	15교구 본사
12	龍華寺	경남 충무시 봉평동 404	1617	1628	쌍계사의 말사
13	白羊寺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제부왕 33년(632)	1917	18교구 본사
14	仙巖寺	전남 송주군 쌍암면 죽하리	9세기	1825	
15	松廣寺	전남 송주군 송광면 신평리	신라말 김상사 창건, 고려 명종 27년(1197) 중창	1842	21교구 본사

표 1 > 事例研究 對象地

② 分析方法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대상사찰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형식적 측면을 위치, 형태, 규모, 구조 등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人工池의 형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국면을 각 대상지 별로 찾고, 그것을 다시 전체의 대상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여 공통적 현상과 이질적 현상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연구대상사찰의 人工池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을 유형화하는 작업은 조성시대, 지역, 위치와 형태를 중심으로 발견된 현상을 구분하고 그것을 공통적 속성에 따라 묶어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③ 解釋方法

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를 蓮池, 影池와 이 두 가지 성격이 複合的으로 나타나는 蓮·影池¹⁾로 구분하여 각각의 人工池에서 발견되는 佛敎的 개념의 象徴的 의미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서 宗敎的인 意味와 象徴性, 佛敎思想의 배경, 造營의 궁극적인 목적 등을 고찰함과 동시에 現地調査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종합하여 人工池에 내재된 의미를 解釋하였다.

3.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전통 造景空間에서 나타나는 水景觀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 나라 전통사찰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형식과 그 속에 내재된 불교적 의미와 상징성을 해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분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이러한 제 방법을 통한 연구결과 人工池가 지닌 형식적인 측면과 그것에 내재된 내용적 측면을 밝힐 수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傳統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위치는 주로 진입공간과 전이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성·속을 구분하는 개념을 가진 자연계류가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적인 위치선정 결과로 보여진다.

둘째, 사찰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형태는 方形, 橢圓形, 卵形, 圓形, 自然形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方形과 圓形을 기초로 한 정형적인 곡선의 형태를 취하는 橢圓形, 卵形, 圓形의 池가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淸平寺의 南池는 그 형태가 사다리꼴형으로 다른 사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학계에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이 人工池는 사찰의 池가 아니라 個人庭園의 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찰의 水景觀을 밝히고자 한 본 연구에서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池의 數는 定林寺址와 彌勒寺址, 松廣寺의 화장실 앞의 池에서만 雙池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池中에 시설이 나타나는 곳은 乾鳳寺의 지로써 池中에 영월교라는 다리를 두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자연계류에서 나타나는 피안교 내지는 해탈교 등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의 사찰에서 나타나는 다리와 섬은 모두 原形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사찰의 人工池는 대부분 池內에 특별한 시설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사찰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규모는 현재의 것이 거의 변형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人工池가 전체공간 구성상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고 사찰의 구조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人工池 역시 그다지 심한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현재의 人工池를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人工池의 면적은 주로 100~300㎡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안의 길이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人工池의 단축과 장축의 비례는 1:2.5의 비율 내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축석의 높이는 60~150cm의 범주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사례연구대상사찰 중 백제계 사찰과 신라계 사찰에서는 각각 일정한 양식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백제계 사찰인 定林寺址, 彌勒寺址 등에서는 方形의 雙池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라계 사찰인 佛國寺, 海印寺, 通度寺 등에서는 橢圓形池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그 人工池가 조영된 시대와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로써, 앞으로 사찰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형식을 보면 그것이 어느 유형의 양식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사찰에서 나타나는 人工池는 그 기능면에서 蓮池와 影池 그리고 이들 두 가지의 성격이 같이 나타나는 蓮·影池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지 15곳의 20개소 人工池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蓮池는 8개소에서 나타나며 影池와 蓮影池는 각각 6개소씩 나타나고 있었다.

1) 蓮·影池라 함은 蓮池와 影池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人工池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편의상 명명한 것이다.